

사설

한국의 '나란다대학' 만들자

중앙승가대가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인되고 속원이던 김포학사로 이전하게 되었다. 인압동의 학사는 명실상부한 종단의 중심교육기관이기에 여러모로 한계가 있었다. 좁은 공간에 얽매한 시설로는, 또 불교학과와 사회복지학과 2개로는 불교를 맡아 이끌어야 할 다양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훈련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사부대중의 뜻이 결집되어 94년 교육부로부터 승가대 이전승인을 받아냈다.

그 이후 관계자들은 부지를 확보하고 각종 인허가와 설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원력과 물력의 결과, 3월21일 이전의 첫 삼을 뜬 것이다. 중앙승가대는 2천년까지 학사이전을 마치고 유아관련학과와 중무행정관련학과 등을 증설하며, 대학원과정과 각종 연구소를 확장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 옛날 인도 나란다대학의 명성과 위광을 한국에서 재현하겠다는 건학불사에 뜻있는 김회와 박찬 기대를 금할 수 없다.

이제 시작이라 어려움이 산적해 있고 풀어야 할 문제가 겹겹이다. 우선 현실적인 예산문제이다. 9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신축기부금 및 후원회비는 거의 다 쓴 상태이다. 종단의 사찰분담금은 약속한 일부만 지원되었을 뿐이고, 두 차례 후원법회에서 약속된 후원금도 거의 들어오지 않은 형편이라 재정은 지금 바닥을 보이고 있다. 공사비만 해도 280여억원인데, 이 재원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참으로 걱정이다.

이번 착공을 계기로 범불교인의 수의동참(隨同同參)과 무량회사(無量會捨)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승가대는 14일 후원대법회를 비롯하여 꾸준히 의의를 홍보하며, 다양한 수익사업을 도모해야 할 줄로 안다. 종단 집행부는 이 사업이 우리 불교의 백

년대계를 위한 관심을 자각하고 예산과 인력을 과감하게 투여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근본 문제는 승가대의 청사지이다. 캠퍼스는 교육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되고 지어져야 한다. 승가대 또한 일반대학의 특성은 살리되, 조계종단의 기본교육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증지를 모아 종합적인 캠퍼스를 마련해나가야 한다. 불교학 외에 문화재학이나 한의학 등 인접학문을 접목할 수 있어야 하고, 종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중무행정을 전담하는 학과도 개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팔만사천 법문을 뉴미디어 시대에 맞추어 정리하고 조직하며 제공하는 관련학과도 필요하다. 즉 장경과 전적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용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도 키워야 한다는 말이다.

불교는 역사상 어떤 조직이나 체계보다 오래 지속된 보편의 유산이다. 부처님의 근본가르침에서 소승의 각 부파로, 부파에서 대승의 포용으로, 대승에서 선의 직절과 파격으로 이어지는 불교의 역사는 창조와 혁신을 통한 자기혁신으로 점철되어 있다. 불교는 역사적계승도 기존의 형식과 교리를 묵수함으로써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진취하는 새로운 모습을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

지금 불교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안락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응전할 지적 제도적 문화적 기반을 형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때이다. 그 인프라의 중심은 '사람'이다. 중앙승가대는 전통의 정신을 지키며 시대적 사명과 요청에 부응하는 인물을 키우는 큰 도량이 되어야 한다. 대학 재단 이사(理事)와 내외(內外)의 결집된 공력이 절실한 때이다.

열린마당

장애인에 관심을

● 양재원계장(조계종포교원·2급보성미비장애)-장애인이면 복지와 연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복지 개념은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과 평등정신이 중요하다. 장애인이라하여 결코 차이를 느끼게 한다거나 스스로 느끼는 것은 잘못이다.

장애인포교도 포교대상으로서 중생제도의 의무감으로 했을 때 동일한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본다. 개성이나

장애인의 목소리

“차별대우가 더 불편합니다” “절에도 경사로 설치했으면”

다양성으로 장애자들을 동등하게 인정했으면 한다.

● 조대용씨(원심회 회원·청각장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으면 한다. 특히 직장에서의 차별은 일의 성과에 관계없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인보다 보수가 미약하는 등 사회적 평등권이 박탈되고 있다. 복리후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서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설 수 없다.

그리고 사찰에서도 장애인이 왔다고 우대한다거나 비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는 우리를 나름대로의 행동양식이 서있는 만큼 똑같이 대해줬으면 한다.

● 임춘발(해광맹인복지회)-아이 보이지 않는 맹인들은 오직 감각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장애자 편의

시설이 전혀 없는 사찰을 가가란 힘든 일이다. 사회에서는 맹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맹인용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등 배려를 아끼지 않는데 절에서도 장애인분들을 위해 보도블록을 낮추든지 경사로설치, 방향인도장치 등을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김철현(대한불교장애인포교회)-장애인들이 특수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불성을 지닌 동등한 포교대상으로 대해줬으면 하는 희망이다. 또 불자들도 자선이나 동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종단과 각 사찰에서 장애자들을 위한 시설투자와 포교프로그램 개발 지원에 앞장서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김진철(서울 북면동·지체장애)-일반 불자들은 사람이 그리워서 오지만 장애인들은 사람이 그리워서 오진 않는다. 종단차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법회를 개설하면 참석률은 대단할 것이다. 사회와 국가에 우롱당하는 장애인들을 불교계가 어루만져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이준영(서울 미아동·뇌성장애)-불교계의 실질적인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장애인 불교 종합회관을 건립하여 취직, 결혼상담설치 의료 재활교육 장애인포교사 육성 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장애인 포교현황

“불교계에도 장애인을 받아줍니까?” 인턴 정립회관의 한 장애인에 불교계의 장애인에 대한 불신을 꼬집으며 이같이 말했다.

장애인 포교대책은 예산 및 프로그램의 부재와 인식부족 등 대체적으로 부실한 실정이다.

현재 교계의 장애인시설은 소적새마을 천마재활원 치치마을 주공재활원 롬비니 특수아동조교실 등 16곳이 있으며 단체는 원심회 대한불교장애인포교회 해광맹인복지회 광림사승아포교회 범문 장애인복지회 대광맹인복지회 부산 대한불교장애인 복지협의회 등이 어렵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활동이 가장 활발한 조계사 원심회(회장 덕신스님)는 최근 청각·시각장애인 포교를 위해 비디오와 슬라이드를 이용한 영상물과 각종 교재제작에 나섰다. 불교문화와 부처님생애를 담은 '산사의

하루' '출가, 새로운 탄생' '우리들의 부처님' 등 3종류의 비디오테이프 6백개를 제작하고 있으나 현재 자금부족으로 늦어지고 있다.

대한불교장애인포교회(회장 김철현)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회원들이 매주 모여 불경이나 단행본을 점검준비중이지

천마재활원 등 시설·단체 25곳 점자불경·시청각교재 마련 시급

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간사 1명도 상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91년 창립한 대광맹인복지회(회장 이재달)는 운영비를 후원금과 회비로 충당하지 못하고 회원들이 대주 갖바위에서 모금한 보시금으로 근근히 충당하고 있다.

대진 연화사(주지 종실)에서 매주 목

장애인 전용법당 「도봉포교원」



◇작지만 소중한 공간으로 알려진 장애자 전용법당 도봉포교원서 장애인들이 선진스님의 법문을 듣고있다.

운불련-장애인불자회 매달 법회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에 보시행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더불어 사는 곳.’

지체장애자 전용법당 도봉포교원(원장 선진·서울 도봉구 도봉 1동 613-1)은 95년 12월 개원하여 매달 1~2회 범문장애인불자회(회장 유봉근) 80여명과 운불련법회(회장 이영근) 30여명의 회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도움을 주고 받으며 법회를 보는 공간이다.

운불련 불자들이 짙짙마다 방문하여 장애인불자들을 태우고 법당에 들어오면 도봉포교원 법당은 금세 환해진다. 선진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불법의 진리를 밝히는 도봉포교원은 20평 규모로 작지만 소중한 공간이다.

또 4월 22일 옹인 한국인숙소에서 있을 불맞이 야외법회를 준비하느라 요즘

은 법회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곳의 불자들은 △정신혁명을 위한 독경 전법 참회생활 △불우이웃 소년소녀가장 등 참생명을 위한 기도 △남북통일 지역감정해소를 위한 한민족 하나됨을 기도 △지구 환경보호를 위한 기도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기도 등 5대 실천강령을 실천하기도 한다. 이런 실천행은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큰 보시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봉포교원 선진스님은 “장애인을 하나의 존엄한 가치로 인식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법회를 볼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며 “앞으로 지체장애인이 편하게 들어 갈 수 있는 1층 법당이 마련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원)

반인들의 인식변화와 재활교육 취직 결혼 등이다.

그러나 인적·경제적인 지원이 없는 교계는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은 고사하고 편한 법회공간,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장애인중 기독교인이 60~70%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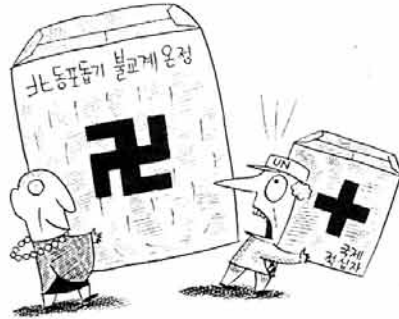
불교계에 만연해 있는 장애인을 자비의 마음보다는 전생의 업장때문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에 대한 재해석과 이를 통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92%가 후천적인 장애인임을 감안한다면 다문화 사회에서 장애인 포교의 중요성은 실로 중대하다는 것이 장애인포교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한편 교계에서는 천태종(총무원장 운덕)과 금산사(주지 도영)가 음성과 전주를 설립중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 연내 설립될 예정이어서 지역 장애인포교는 좀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김원우 기자

현대만평

현대만평



이름은 되어야...

축

취 임

변 밀운 스님의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주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 | |
|-------------------|---------------|
| 봉선사 대중 일동 | 제25교구 신도회원 일동 |
| 봉선사 문도 일동 | 봉선사 신도회원 일동 |
| 봉선사 말사 주지 및 대중 일동 | 봉선사 거사림 회원 일동 |
| 봉선사 교구중회 의원 일동 | 봉선사 합창단원 일동 |
| | 봉선사 청년회원 일동 |
| | 봉선사 청년회원 일동 |
| | 봉선사 학생회원 일동 |

불기 2541년 4월 일
경기도 남양주지 진접읍 부평리 255번지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 就任 인사 말씀 ●

歸依 三寶하옵고

平素 山僧을 아껴 주신 元老스님과 四部大衆계 法體 淸安 하시길 祈願합니다.
山僧이 지난 3월 7日 중 總會에서 第25教區 本寺 奉先寺 住持로 選出되어 3月 18日로 任命을 받았습니다.
山僧이 宜當 格法한 절자로 인사를 드려야 함이 道理인줄 아오나 前後事情이 如意치 않아 卽山式을 省略하고 簡素하게나마 教界 言論과 紙面을 통해 就任인사를 드립니다.
山僧은 앞으로 本寺의 先代 祖師와 耘虛 큰스님의 遺志를 받들어 門從의 和合과 教區 및 宗團의 發展에 精進할 것을 約束드리오니 변함없는 마음으로 배전의 指導와 鞭撻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山僧과 함께 일 할 소임자를 紹介드리면서 就任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소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副住持 : 義正(月庵)
- 總務局長 : 西臺(和庵)
- 企劃局長 : 法海
- 教務局長 : 善仁(庵)
- 財務局長 : 修行
- 布教局長 : 浮雲(和禪)
- 社會局長 : 法空(彌燈)
- 護法局長 : 惠林
- 總務課長 : 知幻
- 護法課長 : 定印
- 事務長 : 姜魯植

佛紀 2541年 4月 日
京畿道 南楊州市 棲拔邑 富平里 255番地

大韓佛敎曹溪宗 奉先寺 住持 部林 密 耘 拜禮
제 25教區 本寺